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1.(수) 11:00 < 11.12.(목) 조간 > 배포시점 2026. 11. 11.(수)

빛고을 광주, 제조AX 혁신의 빛을 밝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4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 개최 -
- M.AX 우수사례 공유 및 암묵지·로봇 공공보급 등 '27년 핵심정책 홍보 -
- 지역기업 AX 촉진을 위한 M.AX 전문가 1:1 상담창구 운영 -

※ M.AX : 제조업 AI 대전환(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 민형배, 이하 전남광주) 등과 함께 11.11(수)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AX 촉진 및 '27년 M.AX 핵심사업 참여 독려 등을 위한 「제4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제4차 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 '26.11.11(수) 14:00 ~ 16:00 / 전남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 1홀
◇ 주최/주관 : 산업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KIAT, KEIT, 한국광융합산업진흥원
◇ 참석자 : 지역 제조기업, AI 전문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 주요발표 : 전병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기조강연), 박형건 NHN CLOUD 수석, 김필곤 한국알프스 실장, 이준호 우성정공 부사장, 류지호 KIRIA 본부장

【 지역확산 컨퍼런스 추진현황 】

제조AX, M.AX는 우리 제조기업들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어느 한 기업·기관의 힘만으로 제조AX를 온전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부가 '25년 9월 1천여개 이상의 제조·AI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이유다.

그간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반도체, AI 로봇, AI 조선 등의 주요 분과를 중심으로 제조AX의 확산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AI 팩토리를 '26년 10말 누적기준 전국 245개를 보급 중에 있으며, 30개 이상의 제조현장에서 진행 중인 AI로봇 실증 등을 통해 산업 특화 AI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AI 팩토리 우수사례 38개 분석결과 30.1% 생산성 향상과 15.5% 불량률 감소 등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제조AX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1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한 「제1차 M.AX 지역확산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앞서 열린 세 차례 컨퍼런스를 통해 M.AX의 전반적인 개념 및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AI기업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해 기업별로 적합한 AX 방안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M.AX의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제4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 】

전남광주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집적해 있는 권역으로 M.AX의 필요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특히, 전남광주에는 완성차 기업부터 협력기업까지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전반이 광주첨단산단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 한 기업의 생산공정에서 확인한 AI 도입 성과를 유사한 공정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기에 유리하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알프스와 우성정공이 각각 자신들의 AX 경험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팩토리 38개 우수사례 중 하나인 한국알프스의 AX 경험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국알프스는 AI 비전 검사와 로봇 시뮬레이션, 자율이동로봇(AMR)을 활용해 품질검사와 도장공정, 물류이송을 자동화하고 있다. 한국알프스 관계자는 "AI 기반 검사와 자율이송 기술을 고도화해 전장제품 생산공정의 자율제조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성정공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해 온 금형 제조공정에 AI 기반 공구 이상 탐지와 생산성 분석,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준호 부사장은 “제조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AI가 학습하도록 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AI팩토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7년 본격 추진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화, ▲풀스택 AI 팩토리, 인력양성과 투자지원 등이 담긴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AI 로봇 공공보급 등의 핵심사업도 소개되었다. 지역 기업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별로 사업 내용·참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AI 로봇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가 ‘27년 부터 추진 예정인 ‘AI 로봇 공공보급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발표를 맡은 로봇산업진흥원은 AI 로봇이 M.AX 확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나 경험과 데이터 부족 등으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영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1,700여 대 AI 로봇의 첫 구매자가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AI 로봇의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경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급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국내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로봇 하자보수 유지 의무 강화 등 로봇 공공보급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발표하였다.

또한, 컨퍼런스 이후에는 지역 제조기업들이 AX 전문가들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는 ‘1:1 현장 상담창구’도 운영되었다. AX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AX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법론에 대해 관심 있는 30여개 지역 제조기업들이 상담을 신청하였다. 지역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상담을 통해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AX 추진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나아가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종과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 AI 팩토리 등 다양한 M.AX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AI 전문기업 연결도 이루어졌다.

산업부 박태현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M.AX가 전국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특히 유사업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단을 중심으로 제조 AI 적용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이 우수사례를 배우고 자사 공정에 맞는 AI 도입 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 확산 컨퍼런스와 M.AX 지원센터*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M.AX 지원센터 : 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상담, 수요기업-AI 공급기업 매칭, 교육, 컨설팅, 사업화 기획,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하는 협력지원센터
→ 수도권,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전남·광주 등 6개소 (☎ 02-6009-3821)

담당 부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910)
		담당자	주무관	조용우	(044-203-39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